

브라질 공업세 감면 중단 전격 발표

(14. 12. 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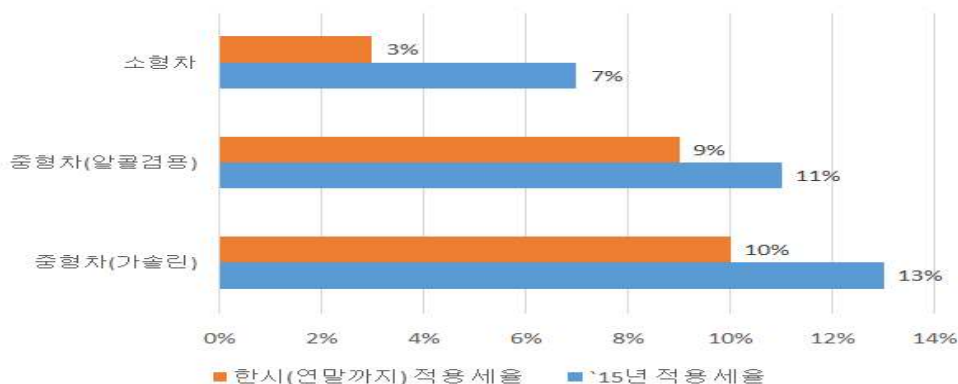
상파울루사무소

1 배경

-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판매시 적용되는 IPI(공업세) 감면을 중단하기로 전격 발표
 - 공업세 감면은 지우마 정부의 주요 내수 부양 정책으로, '12. 5월부터 시행된 이후 수차례 연장됐으나 최근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면서 동 감면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
 - 시장에서는 최근 부진한 내수경기에 비추어 동 정책이 '15년까지는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음.
- 금번 결정으로 브라질 소비자들은 '15. 1월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내수 진작은 물론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2 공업세율 인상폭

- 서민이 주로 타는 소형차의 경우 종전 3%의 세금이 7%로 인상되고, 배기량 1,000cc이상의 중형차(에탄올 겸용) 차종은 9%에서 11%, 중형가솔린 차량은 10%에서 13%로 인상됨.



3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

- '12. 5월 공업세 감면책 시행으로 '12년 중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약 3.8백만 대로 기록하여, 동 정책은 내수부양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상당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바 있음.

- 브라질 자동차협회(Anfavea)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브라질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약 10% 줄어들고, 판매량은 5.4%, 수출은 29%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공업세 감면 중단은 향후 자동차 산업에 상당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